

# 여름방학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전북자치도교육청, 도내 24개 고교서 '순공 60시간 약점 보완 캠프' 운영

### 1학기 배운 내용 익히는 '배움익힘'·취약한 1과목 선택 '약점 보완'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력 향상 프로그램 일환으로 도내 24개 고등학교에서 '순공 60시간 약점 보완 캠프(이하 순공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순공은 '순수한 공부'를 이르는 말이다. 순공캠프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학생의 순공시간 확보,

과목별 약점 분석 및 보완을 통해 밀도 있는 학습을 지원하는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다.

1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학생 스스로 계획해 익히는 '배움익힘 시간(50시간)'과, 취약한 1과목을 선택해 교사와 함께 '약점을 보완하는 시간(10시간)'으로 진행된다.

순공시간에는 참여 학생들의 IT기기 사용을 금지해 보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특히 약점보완은 교사 1명당 최대 4명의 학생을 매칭해 운영한다. 보완과목은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중 학생이 선택하며, 학습역량 강화 및 개별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5일 창조나래 5 회의실에서 순공캠프를 운영하는 24개 고등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순공캠프의 방향성과 운영 방침을 안내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순공캠프 참여 학생들은 순공시간 완료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주도적 학습과 과목별 약점 보완으로 학력 신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한 클래스', 학습지원 앱 '올라'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소통능력·전문성·성실성 겸비'

### 강정석 교수, 전북대 초대 '교수 사무국장'에 임명



전북대학교 강정석 교수(심리학과)가 이 대학 초대 교수 사무국장 임명됐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강 교수가 대학 내 사무국장 임용 후보자 선정 과정을 거쳐 교육부 등의 인사검증을 최종 통과해 이날 오후 정식 임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대 77년 역사상 교수가 사무국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신임 사무국장의 임기는 5일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특히 강 사무국장은 소통 능력이 탁월하고 전문성과 성실성을 겸비해 양오봉 총장의 대학발전 비전을 실현하는 데 최고의 조력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맡고 있는 홍보실장 직도 후임 실장 발령 시까지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대학 사무국장은 대학 내 일반직 공무원 등 직원들을 총괄하고, 인

사, 급여, 자체감사, 회계, 보안, 시설관리, 안전보건관리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보직으로 거점 국립대의 경우 통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아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해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령을 정비했다.

한편 강 사무국장은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코네티컷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외국계 광고대행사 DDB Korea와 SK텔레콤 등 기업 근무 경력을 갖고 있으며, 2015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활동해왔다.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보직을 거쳤으며, 2023년부터 홍보실장 직을 맡아 대학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에 노력해왔다. 대외적으로는 현재 한국소비자광고 심리학회 회장과 한국소비자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중국 교육부

### 중외합작기구 운영 인가 취득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중국 교육부로부터 '중외합작기구 운영 인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최근 중외합작기구 운영 인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우석대학교와 중국 중경도시관리직업대학의 '중·한 공학단과대학(가칭)' 공동 운영을 승인했다.

중외합작기구는 중국 내 교육기관과 외국 교육기관 간 합작을 통해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양 기관이 학생 모집부터 인재 양성 방안과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양 대학은 중국 중경도시관리직업대학에 중·한 공학단과대학을 설립하고 2025년 9월부터 △소프트웨어기술(50명) △전기전자기술(50명) △신에너지자동차기술(50명) 등 3개 분야 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석대학교는 교수진 파견을 통해 전체 교과목의 1/3을 담당한다.

중·한 공학단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2027년 9월 우석대학교로 건너와 2년간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기준을 갖춘 학생에게는 양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총칭에 있는 중경도시관리직업대학은 1984년 설립된 국립대학으로, 40개 전공에서 1만6,000여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박노준 총장은 "중국 교육부로부터 우리 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인정받게 돼 큰 영광"이라며 "우리 대학교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국제적인 감각과 전공 능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의 '2024 정담북클럽'이 군산지역 인문학창고 정담에서 문을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문화적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진은 참여 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시민 위한 특별한 기회... 국립군산대 '정담북클럽'

### '작가없이잇담화'·'작가두고앞담화' 등 알찬 그로그램으로 구성

국립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센터장 오원환)의 '2024 정담북클럽'이 군산지역 인문학창고 정담에서 문을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문화적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2024 정담북클럽에서는 앞으로 총 여덟 명의 전문가를 초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프로그램은 전문가를 만나기 일주일 전에 해당 작품을 함께 읽는 '작가없이잇담화'와 '작가두고앞담화'로 구성해, 즐거운 만남의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8월 중순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시인의 평전: 김남주 평전과 김형수 작가, 시인의 출판: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과 이별을 시인, 작가의 번역: 아니 에르노의 남자의 자리와 신유진 번역가, 책의 물성: 프로파간다 출판사 김광철 대표 등 책이 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일반 독자가 접하기 어려운 독립출판물을 선보이는 프로파간다 출판사 김광철 대표와의 만남은 독자에게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명의 작가에게 집중할 예정이다. 권여선 소설가, 이문재 시인, 김미옥 독자가, 현기영 소설가 등 현재 한국 문학계 이슈의 중심에 있는 작가들이 군산으로 찾아오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문학과 지역: 각각의 계절/인생 주정

뱅이', '문학과 길: 혼자의 넓이', '문학과 현실: 미오기전/ 감으로 읽고 각오로 쓴다', '문학과 땅: 제주도우다'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야기그릇담(대표 김규영)이 인문학창고 정담에서 진행하는 '정담북클럽'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주제의 '작가없이잇담화'와 '작가두고앞담화'에 모두 참석한 사람 중 세 명을 추첨하거나 게임을 통해 선정해서, 해당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포함돼 있다.

오원환 센터장은 "팝업 형태의 정담북클럽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여러 책모임이 만나는 자리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리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기자

## 여름철 화재·장마 대비 만전

### 전북자치도교육청, 재해취약구간 피해 예방 최소화 노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름철 주요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리플릿에는 방방용기구와 전기설비 안전 사용 안내, 화재 위험 요인 사전점검과 소방시설 자체 안전관리, 응급·응급 작업 공사 현장 화재감시자 배치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장마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취약구간의 취약 구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선제적 안전조치도 추진한다.

특히 2023년 집중호우·태풍 피해 학교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 D등급 현장, 지난 6월 불안 지진 피해 학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장은성 기자

## "학폭 근절"... 전북교육청, 11월까지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7월부터 11월까지 '직장인 학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 구성원 중 하나인 학부모들이 함께 책임 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다.

교육은 교원 중심 생활교육전문가, 장학사 등으로 꾸려진 학교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단이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의 이해 △사례를 통한 방어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당사자간의 관계개선 △피해학생의 상담·치유 회복·법률 지원 등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11월까지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시범 실시한 후 사업 만족도와 효과성 등을 분석해 내년 부터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